

# “블루 이코노미 사업 예산 차질 없게 목소리 내달라”

“아직도 그런 일을...” 진도군 보여주기식 연안 정화 질타  
군공항 이전 공감대 형성 질의에 김 지사 “민간공항과 별개”

## ■전남도 국정감사 쟁점은

10일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도군의 보여주기식 연안 정화 행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지방 이양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겪게 될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한전공대, 군 공항 이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귀를 의심했다. 사과 한 마디 없냐”=김민기(민주·경기 용인시 을) 의원은 지난 달 20일 진도군 가계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바다 쓰레기를 미리 뿌려놓는 행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했던 전남도 간부 공무원을 불러내 해당 내용을 재차 확인한 뒤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아직도 그런 일을 벌인다. 신뢰를 뚝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무리 깨끗한 해안 가꾸기 활동을 하면 뭐하냐”면서 “전남도는 사과 한 마디 없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와 진도군 주최로 전남도와 무관한 행사이지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유념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블루 이코노미, 예산 차질 없도록 목소리 내라”=권은희(바른·광주 광산을) 의원은 “정부의 균특회계 지방 이양 대상 사업에 전남의 핵심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연관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 같다”며 “지방 이양 대상 사업에 들어가면 향후 3년간 지원이 없는데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전남도가 파악한 올해 지방이양사업(28개) 중 블루 이코노미의 6개 세부 프로젝트와 연관된 항목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블루에너지)·문화시설확충 및 운영(블루투어)·농촌자원복합산업화(블루시티)·해양 및 수자원관리(블루투어) 등 14개나 된다. 균특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만들어 해 오던 건데, 정부가 지방에 넘기면서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

김 지사는 답변에 나서 “지방 이양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속해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또 지난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사가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합의한 것과 관련,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민간공항과 군 공항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한전공대, 최적의 플랜인가”=애초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던 한전공대의 경우 거론되긴 했지만 적극적인 찬·반 공방이 아닌, 발전적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상수(자유·인천 중구동구 강화홍진군) 의원은 “한전 부채가 59조원에 달하는데 한전공대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인원시장 재입 시 연세대 캠퍼스 유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한전공대 설립방안이 최적의 플랜인가는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학이 들어가면 주변이 크게 개발되는 만큼 일부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다른 대학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 국정감사가 10일 오후 무안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에는 연구중심 대학이 1곳도 없고 의과대학도 없는 실정”이라며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세계적인 에너지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한전공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전력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디딤돌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는 전력·에너지 산업에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미래 신기술과 창의적 전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선도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문 대통령 “삼성의 디스플레이 투자, 제조강국 출발점”

### 아산 ‘신규투자 협약식’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 방문,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계없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99일째를 맞은 날 경제를 대표하는 삼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대기업이 발맞춰 뛰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향후 7년간 4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마중물 삼아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친(親)기업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 경제의 돌고꾸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과의 ‘거리’를 좁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접촉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이 가전에 이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립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 “현재 3조원 수준인 해양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30년 1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매출 1000억원이 넘는 해양 스타트업, ‘오션스타’ 기업도 2030년까지 20개를 발굴,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유시민 알릴레오’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전문 공개

“진위 여부 시민에게 맡긴다”

“KBS도 인터뷰 공개 마땅”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10일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PB)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유시민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가 지난 8일 김 차장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조 장관 등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단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서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이에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재단은 또 “알릴레오 제작진은 녹취록 공개에 대한 김 차장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지난 8일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알릴레오 제작진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음을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밝히고자 한다”면서 “KBS도 자신의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인증하기 위해 9월 10일 KBS 법조팀과 김 차장의 한 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이 지난 8일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과 KBS와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은 전날 “KBS가 인터뷰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할 적 없다. 그냥 알 수 있게 흘렸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 3일 유 이사장과 김 차장 사이에 진행된 1시간 30분 분량(A4용지 26쪽 분량)의 인터뷰 내용 전체다. /연합뉴스

## 국민 10명중 6명 “서초동·광화문 집회는 국민주권 발현”

리얼미터 여론조사...문 대통령 지지도 42.5%, 민주 37.5%, 한국당 34.1%

‘검찰개혁 촉구’ 서초동 집회와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국민 주권 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한 결과 서초동·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정치권의 무능력을 보완하는 국민주권의 발현’이라는 응답은 61.8%로 집계됐다. ‘국론을 분열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

해한다’는 답변은 31.7%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6.5%로 나타났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더 하락해 40%대 초반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10월 1주차 주간집계보다 1.9%포인트 내린 42.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는 2.7%포인트 오른 55.0%로 나타나 지난주의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5%(0.8%포인트 ↓)로 2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0.9%포인트 오른 34.1%로 지난주에 이어 오름세를 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3.4%포인트로 좁혀져 잠정 집계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 모던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